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폭염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녹색 복지도시

박 경 훈
창원대 교수

지난 몇 년 간 이상기온 현상으로 유럽을 비롯한 가까운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폭염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blackout)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올 해도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빠른 5월 말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남부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된다.

이처럼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것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최근 10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중 폭염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폭염과 같은 극한적 기후현상과 자연재해, 전염병과 온열질환 등을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염이라는 극한적인 기후현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기나 샤워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195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남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런 면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자주 내려지고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경제적 빈곤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폭염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행정 전반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폭염특보와 같은 사전 예방과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 산업, 의료, 행정 분야 등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더위를 식혀 줄 수 있는 공원, 가로수, 분수 등과 같은 도시 속 오아시스를 '폭염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원이나 가로수와 같은 공원녹지는 그늘 제공이 풍부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거나 다양한 형태의 숲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폭염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관련 시설이나 보행로를 중심으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남 지역에서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폭염 대비 쿨링존' 사업을 타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한다.

폭염은 단순히 무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폭염 등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이웃과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땀을 식힐 수 있는 동네를 가꾸어 가는 것에서부터 폭염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녹색의 복지도시를 그려본다.

기 고

1년 앞 광주U대회 차세대 리더를 위한 준비

정 의 화
국회의장

2010년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광주, 코리아'라는 호명을 받았던 감동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유치활동 때부터 지금까지 필자가 추구하고 있는 유니버시아드의 가치이자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할 과제는 차세대 리더들 간 화합의 리더십을 나누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170여 개국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과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대학시절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대생이자 학보 1면 담당 및 사진기자로 골목골목 취재를 다니고, 자갈치 시장에 휠체어를 탄 채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 행군하는 군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군상을 카메라 렌즈 안에 담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 스포츠에도 심취해 동기들과 함께 야구, 합기도 등 스포츠 동아리를 하였고, 의예과 2학년 때는 대학총장배 야구 시합에서 의예과 창설 이후 첫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때 경험한 대학 스포츠는 필자에게 가슴 속 뜨거운 무엇으로 강렬하게 남아있다.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은 승부와 기록의 경쟁을 넘어, 리더십을 경험하고 협동과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훌륭한 기회다.

전세계 리더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맨십을 교육받고, 대학스포츠를 통해 차세대 리더십 역량을 키운 인물들이 많다. 대학시절 농구선수로 활약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러시아 국기무술인 삼보선수로 활약했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스태그 교수는 '스포츠맨십'이란 "패배를 인정하고, 잘 싸웠지만 패전한 선수를 응원하며, 패배한 뒤 울지 않는 선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스포츠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던 대학시절의 경험이 필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듯,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생들과 각국 차세대 리더들과의 교류 또한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12만 명 양성을 목표로 20여개 지역대학과 연계해 상설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통해 '외국어 스쿨'도 대학 12개 언어교육원과 함께 운영 중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외국어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장으로서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15년 광주에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평화의 제전을 펼친다면, 그보다 멋진 경험은 없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1년 뒤 만나게 될 광주가 그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

의료칼럼

디스크와 헷갈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김 석 원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은 64세의 김모씨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으며,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증상을 호소했다. 마치 디스크 증상처럼 밤낮 없이 찾아오는 옆구리 통증 및 오른쪽 다리로의 통증 때문에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허리디스크 증상처럼 보이지만 통증을 유발한 원인은 의외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는 질환이었다. 그는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있으며, 최근 무리한 작업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약 3개월 전에 하복부 옆구리 쪽으로 피부발적과 함께 군집성 수포가 띠를 두르듯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가 '대상포진'이라는 진단 하에 약물 처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수포가 사라진 후에도 마치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 살짝만 닿아도 발생하는 심한 통증, 가려움 등 도저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의 발병으로 몸안에 내재돼 있던 바이러스가 특히 노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면 다시 생겨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신경이 분포한 길을 따라 피부로 침범해 띠를 두르는 듯한 발적 및 수포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피부 병변과 함께 참기 어려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약 70% 정도 되지만 그 중에는 피부병변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통증양상만 보여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 이외에 복부 장기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통증, 신장질환으로 인한 통증, 특히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나타나는 통증 등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디스크 통증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약물적 처치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앞에서 말한 김모씨의 경우는 불행히도 대상포진 이후 신경조직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야기해 통증증후군을 일으킨 상태로, 이러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연령의 증가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가 가장 큰 요소이다. 또한 포진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나 범위가 넓은 경우, 면역저하, 영양실조 등이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질환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우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적 치료(항우울제, 항경련제 등), 마약성 진통제, 신경차단술(경막외주사 등)등을 사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정확한 진단 및 용법, 정확한 시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널리 알려져 50세 이상의 연령에게도 권해지고 있어 약 60~70%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편안한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 적절한 치료 및 통증조절을 한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유명무실한 병원 환자 연대보증인제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병원 의료체계는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병원을 간다. 며칠전 한 유명 대형 병원에 갔다. 사전 예약 후 날짜를 받아 병원에 서류접수를 했는데 입원서류를 주면서 몇 군데 기록 요청을 했다.

그 내용은 본인 및 보호자 연대보증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등 이었다. 특이하게 은행에서 진작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의아해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알 수가 없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입원서류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 제출하라고 했다. 서명 란에 서명도 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이 왜 필요하지가 궁금했다. 물론 병원에서는 안전장치로 대용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이 매우 중요하다면 당사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다. 또한 병원은 연대보증인이 정당한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소한 입원과 자비로 진료비를 충분히 지불 할 수 있음에도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는 병원의 태도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은 국가를 상대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 물론 나중에 환자는 국가에 전액 의료비를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환자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관행대로 일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술은 최고의 수준인데 아직도 의료행정 부분은 부족하다. 세세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환자와 병원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병원의 환자 연대보증인제도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

▲최성오·경기도 안성시

社 說

광주·전남 상생 협력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협력사업'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는 것이다. 원래 한 뿌리였던 광주·전남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합의 사항은 모두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新) 영산강시대 광주·전남 상생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 관광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나주의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및 무안공항 발전 방안, 제2남도학숙 건립에도 뜻을 모았다. 한빛원전(영광) 안전성 확보와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등도 포함됐다.

양 시·도가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됐지만 정치·경제·문화적인 동질성을 따진다면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 민선자치 이후 광주와 전남은 간헐적으로 협력사업을 도모했으나 이번처럼 열기가 높은 적도 없었다.

양측은 이르면 8월 이내에 광주·전남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산강 복원 추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인근 에너지 벨리, 과학영농단지 스마트 팜 조성,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 내 국립심혈관 센터 건립 등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상생 협력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도 모두 임기 초반에는 현안정리와 새로운 역점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협력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에서도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가동됐었지만 임기 중반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례가 있다.

제2 남도학숙 건립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 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 특히 양 시·도는 '반짝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검찰 기계적인 항소, 소송 낭비도 따져봐야

6·25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틀에 박힌 항소가 소송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1심 재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 패소하는데도 검찰이 일률적으로 항소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물적·정신적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내에서 6·25를 전후해 경찰·군인 등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294건으로, 전체 소송 가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1심에서 소송 건수 145건 가운데 피해자 및 가족의 승소는 109건에 이른 반면 국가가 이긴 것은 17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가가 패소한 109건의 사건 모두를 2심에 항소해 사법부의 업무 부담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 확정 판결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 2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소송에 매달려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소송을 진행하는 검찰이나 이를 판단하는 사법부 모두 업무 가중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 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고등검찰청이 소송 사건별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국가계약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소송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해소해야 한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피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물고기 이야기

'삼식이'라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집에서 세 끼 다 챙겨 먹는 눈치 없는 남편? 그거야 요즘 생겨 난 말이고. 예전엔 바보 같은 친구를 놀릴 때 삼식이라 했다. 왜 그랬을까.

'삼세기'라고 하는 아주 못생긴 물고기가 있다. 하지만 매운탕 맛은 괜찮아서 사람들이 세 번 놀란다고 한다.(못생겨서 놀라고, 값이 싸서 놀라고, 맛있어서 놀라고)

삼세기의 전라도사투리가 바로 삼식이다. "에라, 이 삼식이 같은 놈!" 이처럼 사람들은 어벙한 친구를 만나면 못생긴 삼세기를 연상했을 것이다. 놀림말인 삼식이가 나온 배경이다.

우리는 흔히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말짱 도루묵'이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도루묵'도 물고기 이름이다. 배가 은빛으로 빛나는 도루묵. 옛 문헌에는 '돌목'으로 나온다.

'돌돔' '돌가자미' '돌붕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접두어 '돌'은 흔하거나 하찮은 것을 뜻한다. 잔뜩 기대를 하고 그물을 건져 보니 좋은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모두 '도루묵'뿐이었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나온 연유다.

하지만 우리는 도루묵의 유래를 달리 알고 있다. 선조 임금이 피란길에 '묵'이라는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 이야기다. 하도 맛있어서 이름을 '은어'로 바꾸도록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궁에서 다시 먹은 맛은 옛 맛과 달랐다. 그래 "에이, 도로(다시) 묵이라 불러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어낸 이야기일시 분명하지만 조선시대에 나온 '고금석림'(古今釋林) 등의 문헌에 전해진다.

총리 지명을 둘러싼 초유의 '인사(人事) 참사'를 보면서 물고기 이야기를 떠올렸다. 신문기자로서 최고 단계인 주필까지 지내며 쌓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야말로 '삼식이 신세'가 되어 낙마한 문창극. 세월호 참사로 묵사발이 된 채 '책임지고 물러난다' 할 때는 언제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털썩 도로 주저앉은 '도루묵 총리' 정홍원.

이거야 뭐, 실내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 풀어주었다가 다시 낚아 올리는 낚시놀음도 아닐 테고. 이제 근본적으로 어장(漁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도루묵만 걸려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그물을 던져서야 되겠나.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